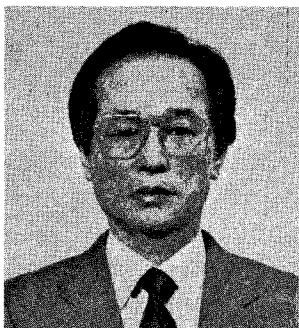


韓國 밤栽培 30年

適正價格維持政策 아쉽다

徐 基 洪 / 밤생산자협회장
독림가협회부회장



우리 農山村民들은 과거 어느時代 어느 社會를 막론하고 淸後와 貧困에 시달리며 모든 分野에서 外面만 당하고 살아왔던것이 否認 못할 事實이다.

民族的 受亂史를 짊어지고 限 많은 설움과 戰亂으로 인한 苦痛의 50年代를 보냈고 60年代를 맞으면서도 絶對 貧困의 상징인 春窮期의 보릿고개는 이時代를 살아온 모든 이에게 너무나도 많은 시련과 苦痛을 안겨 주었다.

이와같이 한숨과 苦痛속에서만 살아온 우리들 農山村民들은 1960年代 初에 이르러 農山村에도 무엇인가 農外所得 對策을 갈망하고 있던차에 全南 光陽郡 多鵬面 蟾津 마을의 한 村夫에 의해서 改良 新品種 밤나무가 栽培되게 되었는데 이는 오늘날의 改良種 밤나무를 栽培하게된 根源이 되었다 할것이다.

이분은 號마져 “栗山”이라하는 金午千氏로서 1931年 日本 “구마모도” 현 “이마부라”(今村) 農場에서 雇傭돼 있을때 日本産 밤나무 苗木 銀早, 銀寄, 銀行栗, 東栗 北行栗(品種名은 確實치 않음) 등의 5,000餘本을 自身の 出身地인 蟾津마을 뒷산에 심었던것을 戰亂으로 인하여 放置해 두었다가 50年代末頃부터 이를 열심히 管理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接穗를 채취하여 山地의 在來種 雜밤나무에 直接 接木을 試圖한것이 연유가되어 本人이 살고있는 多鵬面 일대를 비롯하여 光陽郡內 各面山林에 있는 많은 山主들이 이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해가 거듭할수록 全南道內는 물론, 전국적으로 그 熱氣가 불붙기 始作하였고 관계당국에서는 穀樹로서도 認定할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穀樹村 造成이라는 命名아래 栽培技術普及과 財政的 뒷받침으로 급기야는 大統領 特別事業으로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日本으로부터 苗木을 直輸入하게되고 國內 養苗業者도 急增하게되어 栽培面積이 急進적으로 부러나게 되었고 1970年代 中반에 이르러서는 밤栽培 適地로 判定된 中部以南의 慶南, 全南北, 忠南北 등의 主產地에서 年間 生産量이 8萬餘톤을 넘어서 9萬여톤에 육박하게 되었다.

1980年代 中半에 이르러서는 世界第二의

밤生産國으로 받돋움하게 되어 年間 3~4 만톤의 輸出에 따른 外貨도 벌어들여지게 됨으로써 農家所得增大에 크게 寄與하게 되었고 生産者로서의 보람과 矜持도 갖게 되었다.

그러나 栽培面積이 불어남에따라 生産量이 過剩되고 樹令이 많아짐에따라 價格上의 問題, 品質向上, 品種更新등 많은 問題點이 야기되고 있다.

- 一 即 첫째로 맛이 좋고 多收穫品種
- 二 둘째 貯藏性과 病虫害에 강한 品種
- 三 셋째 이들을 감안한 地域間에 適正 品種選擇
- 四 넷째 輸出과 加工技術의 開發등 解決해야될 難題들이 많다.

또한 밤나무 栽培는 山地라고하는 地形的인 惡條件과 農山村의 勞動力의 태부족,

賃金の 계속적인 上昇으로 인한 生産費의 增加와 食品加工業體, 輸出業體등의 輸出價格 決定 未洽, 內需消費低下로 生産原價를 따르지 못하는 까닭에 生産農家는 막대한 損害를 당하고 있는것이다.

따라서 이의 打開을 爲해서는 生産原價를 줄일수 있는 技術開發과 함께 適正價格維持政策이 뒤따라야함은 물론이다.

우선은 內需消費 擴大策이 이루어져야 하며 輸出價格의 適正線 維持와 機械化를 이룩할 수 있는 林道施設費 支援(長期低利融資등)은 물론 高令木에 대한 品種更新에 따른 支援策이 병행되어야함을 강력히 당국에 주장하는 바이다.

또 個個人的인 栽培農家는 그동안의 經驗을 살려 研究心を 높여나가면서 鬪志와 忍耐으로써 스스로의 自求策을 強化해 나가 주기를 당부하고자 한다.

밤생산 현지연찬회 개최 안내

※ 전국의 밤생산자들께서는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때 : 1990. 8. 1~8. 2 (1박 2일)
2. 곳 : 전남 광양군 군민회관
3. 연찬내용
 - 밤생산과 관련한 정부시책 발표(산림청)
 - 밤생산과 관련한 기술특강(임목육종연구소)
 - 총회 및 토의
 - 현지연찬

주체 : 한국밤생산자협회

후원 : 한국독립가협회